

# 시편을 보라빛 렌즈로 읽기

## -시편의 여성 관련 용어의 쓰임과 번역에 관한 연구-

유연희\*

### 1. 서론

이 글은 성서 시편에 등장하는 여성 관련 용어들을 살펴봄으로써 시편이 얼마만큼 여성 우호적인지 또는 여성을 배제하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우리말 번역의 포괄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sup>1)</sup> 그간 학자들은 시편을 비롯한 구약성서를 여성 시각을 가지고 조명하는 노력을 많이 하였고, 성서가 가부장제 문화를 반영하는 경전이면서 동시에 여성해방적 본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내었다. 이러한 큰 배경을 뒤에 두고서 이 글은 시편에서 어머니, 아내, 딸 등과 같은 여성의 역할을 언급한 구절과 출산과 양육과 같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언급한 구절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려고 한다. 또한 여성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수행되는 가부장적 전략도 지면이 허락하는 한 다루고자 한다. 짧은 글이나마 전체적으로 시편이 여성 우호적인 책인지, 여성과 관련하여 어떤 번역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은 여성주의를 상징하는 색깔 이름을 붙여서 시편을 보라색 렌즈로 읽는 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 2. 시편의 여성 이미지

시편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어머니, 딸, 아내, 과부, 여종, 젊은 여성, 불임 여성, 공주와 왕후, 익명의 여성들 등이다. 이들 여성은 출산, 양육과 함께 등장하고, 결혼식 장면, 예배의 인도자 등 다양한 역할과 장면에서 등장한다.

---

\* 감리교신학대학교 강사, 구약학.

1) 『개역개정』이 작은 글씨로 표시한 부분은 여기서는 괄호나 꺾쇠에 넣는다. 장절은 우리말 성경을 따른다.

## 2.1. 어머니

시편에서 어머니는, 시인의 어머니, 대적의 어머니,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의 어머니가 나온다. 시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세 가지 표현으로 지칭한다. ‘어머니(연, אִמִּי)’, ‘당신[하나님]의 여종(아마트카, אַמְתְּךָ)’, ‘태’(베텐, בֵּתֶן; 레헴, רֵחֵם) 이다.

### 1) 시인의 어머니(27:10; 69:8; 35:14)와 적의 어머니(50:20; 109:14)

시인은 27:10(“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당신은 나를 영접하십니다.”)에서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말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자식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로 표현한다.

원문은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아비 베임미, אָבִי וְאִמִּי)이고, 『개역개정』이나 『공동개정』처럼 ‘부모’라고 번역해도 내용은 같다. 그러나 ‘부모’라고 번역할 것인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할 것인가? ‘부모’는 간결하여 경제적이고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길어서 운율을 깨기 쉽다. 히브리어에는 ‘부모’라는 단어가 없고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써서 표현한다. 히브리어의 ‘아버지’는 ‘조상’, ‘선조’를 뜻하기도 한다. 27:10에서 히브리어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라고 번역한 것은 의미상 정당할 수 있지만 원문의 ‘어머니’를 생략하는데 문제가 있다. 원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번역하면 ‘어머니’라는 세 글자와 그에 따르는 어미(suffix)를<sup>2)</sup> 포함하면 긴 구가 되므로 운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시편에는 여성 이미지가 매우 적게 나오는데 원문에 들어 있는 어머니를 번역에서 ‘죽이는’ 편이 ‘시답게’ 번역하게 하는 것이냐가 문제이다.<sup>3)</sup> 그렇다고 ‘어머니’를 빼서 줄여야만 한국의 시답다고 볼 수 있느냐가 물을 수 있다. 수용언어에서 ‘시답게’ 하기 어려울 바에야 길어지더라도 ‘어머니’도 살리는 게 좋겠다.

시편 35:14(“내가 친구와 자매형제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혀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애도하듯이 하였다.”)에서 시인은 무고하게 자신을

2) 여기서 말놀이를 의도하지는 않았다.

3) 김정우 교수는 개역과 『개역개정』의 문자적 번역이나 표준역의 긴 풀어쓰기는 더욱 “압축되고, 고양된 시어”를 사용한 “쉽고도 좋은 우리말” 번역을 요청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히브리 시를 우리말로 “시답게” 번역하는 과제, 형식일치(formal correspondence) 번역보다 의미의 동등성(dynamic equivalence) 번역이 더 바람직하고, 한국의 정서에 가까운 시 번역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 원문연구』 12 (2003), 7-40.

해하려는 자들을 자신이 얼마나 잘 대해 주었었던가를 말하려고 그들이 아팠을 때 “내가 어머니를 애도하듯이 슬퍼했다”고 말한다. 시인은 자신의 선함을 강조하려고 멀쩡한 어머니를 ‘죽였다.’ ‘어머니를 애도하듯이’(카아벨 엠, כָּאֲבֵל־אֵם)의 뜻이 불분명하므로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모친상’이라는 단어를 넣어 각각 ‘모친상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모친상이라도 입은 듯이’라고 번역하였다. ‘모친상’의 ‘모’가 분명 ‘어머니’라는 뜻이기는 하나 ‘모친상’이라는 별개의 단어를 도입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번역에서 사라졌다. 『개역개정』은 원문을 따라서 ‘어머니’를 넣어 ‘어머니를 곡함같이’라고 번역했다.

‘형제’(아흐, אָח)가 『개역개정』은 ‘형제’, 『새번역』은 ‘친척’, 『공동개정』은 ‘동기’로 번역되었다(35:14; 69:8). ‘아흐’가 남성 형제와 친척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여성 자매들과 여성을 포함하는 회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에서도 문맥에 따라 어휘를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뒤의 ‘어머니의 친자녀’가 대구어이므로 제한적인 단어인 ‘형제’보다는 ‘형제자매’가 낫다고 본다.<sup>4)</sup>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아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금쪽 같이’ 귀하다. 히브리어의 ‘아흐’가 문맥에서 분명히 동기간을 나타낼 때는 매번 ‘자매형제’나 ‘형제자매’로 섞어 쓰거나 ‘자매’ 또는 ‘형제’라고 여기저기서 번갈아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편 50:20(“앞아서 네 자매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친자녀를 비방한다.”)에서 ‘어머니’가 다시 나온다.<sup>5)</sup>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꾸짖으시는 말씀이다. 악인은 동기간을 비방한다. ‘베아히카//베벤 임카’(בְּאֵיכָה // בִּבְנֵי-אִמִּי)에서 아흐(אָח)나 벤(בֶּן)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형제’나 ‘아들’보다는 포괄적으로 ‘자매형제’나 ‘동기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어머니의 아들’은 ‘친동기’를 뜻하는데, 이 단어는 ‘어머니’를 굳이 넣어 번역하는 것보다 매끄럽다. 그럴 경우, 원문의 ‘어머니’를 빼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말을 살리자니 ‘어머니’와 여성 어휘가 죽는다는 점이 포괄의식을 가진 번역자의 딜레마이다. 어쨌든 이 시구에서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딱히 없고, 악인이 친동기간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하기 위해 언급되었을 뿐이다.

시편 69:8(“동기간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4) ‘바님’(아들들)이나 ‘아흐’(형제)가 문맥상 명백하게 모두 포함할 경우, ‘형제자매’, ‘자녀’, ‘아이들’ 등으로 번역한 것은 『새번역』의 번역 원칙 중 하나였다(시 22:23; 73:17; 133:1 등). 『개역개정』이 도로 ‘아들들’과 ‘형제’로 후퇴한 것은 유감이다. 『새번역』의 번역 방향에 대해서는,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1-329를 참조.

5) 베벤 임카는 ‘어머니의 아들’, 곧 단수라서 『개역개정』은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지만 문맥은 복수도 무방하다.

되었다.”)에서 시인은 친동기들(레에하이, לִבְנֵי אָמִי//리브네 임미, אָמִי לִבְנֵי)에게서 따돌림을 당한다고 말한다. 세 번역 성서 모두 ‘어머니’를 넣어 번역하였다. 여기서 ‘어머니’의 역할은 위 35:14와 50:20과 같다. 곧 한 형제자매를 낳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언급된다.<sup>6)</sup> ‘어머니’는 다시금 부정적인 문맥에 등장한다.

시인은 109:14에서 야훼께 “악인의 아버지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마소서”라고 기도할 때 ‘어머니’를 언급한다. 세 번역 모두 ‘어머니’를 살려 넣었다. 『개역개정』이 ‘조상들의 죄악’과 ‘그의 어머니의 죄’라고 번역한 것은 낱말의 짝이 어울리지 않아 대구법이 매끄럽지 않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이 ‘아비/아버지의 죄’와 ‘어머니의 죄’로 대구를 잘 살렸다. 문제는 어머니가 ‘죄’라고 하는 부정적인 문맥에 등장한다는 점이다.

위 다섯 편의 시편(27:10; 35:14; 50:20; 69:8; 109:14)에 등장하는 어머니 이미지는 전부 부정적인 맥락에 들어 있다. 물론 종종 아버지와 나란히 언급되기는 하나 우리는 어머니에 더 초점을 둔다. 27:10의 어머니는 시인인 ‘나’를 저버렸고, 69:8에서는 ‘나’가 한 어머니를 둔 동기간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35:14에서 ‘나’는 상대가 아팠을 때 내 ‘어머니를 애도하듯이’ 마음을 썼지만 그가 ‘나’를 배신했다. 악인들이란 ‘어머니’의 친자녀를 비방하는 부류이고(50:20), 그들의 ‘어머니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야 한다(109:14). 결국 ‘어머니’는 시편에 등장하지만 그다지 자랑스런 조명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구약성서는 보통 어머니의 출산의 능력과 양육과 돌봄을 칭송하는데, 그러한 역할과 관련되어 어머니는 시편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

## 2) 어머니의 태(22:9-10; 51:5; 58:3; 71:6; 110:3; 139:13)

시편에서 ‘어머니’는 모태라는 이미지 속에서 출산, 태의 역할, 양육과 관련해서도 등장한다. 어머니의 모태에 관한 언급은 긍정과 부정적인 두 가지 맥락에 들어 있다. 시인은 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시인의 주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동시에 태에서부터 죄인이었다고 고백한다. 먼저 긍정적인 맥락에서 언급된 경우를 함께 다룬다.

시편 22:9-10에서 시인은 두 절에 걸쳐 같은 생각을 반복하여 강조한다. “실로 당신은 나를 모태(베텐, בֶּטֶן)에서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가슴에 안겨 있을 때부터(알-슈테 임미, עַל-שֵׁרֵי אָמִי)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레헴, חֲמָ)에서부터 당신께 맡겼고, 어머니의 모태(베텐 임미, אָמִי בֶּטֶן)에서부터 제게는 당신이 있

6) 상반절의 ‘아호’는 어머니의 자녀들/친자매형제와 대구가 되는 어휘이다. 그렇다면 『새번역』이 아호를 ‘친척’이라고 번역한 것은 좀 멀어 보인다.

습니다.” ‘날 때부터’라는 개념이 네 번 나온다. 시인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 ‘태에서부터’라는 개념이 ‘어머니 가슴에 있을 때부터’와 대구를 이룬다. 9절과 10절에 각각 ‘어머니’가 들어 있지만 세번역 모두 9절에서만 ‘어머니’를 넣어 번역하고 10절에서는 ‘어머니’를 뺐다. ‘젖을 빨다’와 같은 우리말 표현(『새번역』)은 공중 예배용 성경치고는 적나라하다고 본다. ‘빨다’를 뜻하는 동사(아나크,  $\text{קָנַח}$ )가 원문에 없기도 하다. 그래서 “알-슈데 임미”를 “어머니 가슴에 있을 때부터”로 번역하는 것이 더 무난한 듯하다.

시인은 사람이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며 ‘어머니’를 언급한다. 시편 51:5(“참으로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은 ‘베아본’(בְּעֹבֹן)과 ‘베헛트’(בְּחַטָּא)를 대구로 써서 시인이 ‘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반복한다. 『개역개정』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가 원문에는 더 가깝지만 『새번역』과 『공동개정』의 번역이 더 무난하다고 본다. 시인의 원문 표현은 어머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처럼 들린다.

시편 58:3(“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날 때부터 빛나갔다.”) 역시 ‘메라헴’(מֵרָחֵם)과 ‘미베텐’(מִמְבֵּטֵן)을 대구로 써서 ‘날 때부터’를 나타낸다. 그런데 『새번역』은 하반절에 원문에 없는 ‘어머니’를 넣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빛나갔구나.”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말의 육처럼 들리게 한다.

시편 71:6(“내가 모태에서부터 당신을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당신이 저를 택하셨으니 저는 항상 당신을 찬송합니다.”)은 위 22:9-10과 동일한 맥락에서 ‘어머니’를 언급한다. 곧 시인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의지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개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과 하나님의 굳은 관계를 강조하는데 언급된다.<sup>7)</sup>

‘모태’와 ‘어머니의 태’는 다를까? 두 단어는 몸의 동일한 부분을 가리킨다는 면에서 같고, 글자 수, 표현, 단어 면에서 다르다. ‘모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개다. ‘레헴’(לֶחֶם)이나 ‘베텐’(בֶּטֶן)도 같은 뜻인데 시인이 구태여 ‘어머니의 태’라고 풀어쓴 이유가 문학적 기법인지, 반복을 피하려는 것인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모태’가 가장 난해한 맥락에서 쓰인 경우는 시편 110:3b(베하드레 코데쉬 메레헴 미슈하르..., בְּהַדְרֵי־קֹדֶשׁ מִרְחֵם מִשְׁחָר,  $\text{בְּהַדְרֵי־קֹדֶשׁ מִרְחֵם מִשְׁחָר}$ )이다. 세 번역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은 원문이 난해하다는 것을 반영한다.<sup>8)</sup> 『새번역』(“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

7) 세 번역은 내용이 상이하다. 『새번역』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에 나를 받아 주신 분도 바로 주님이셨기에”라고 하나님이 산파의 역할까지 하시는 것처럼 풀었다.

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과 『개역개정』(“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은 원문의 ‘메레헴’(מֶרֶחֶם, 모태에서부터)을 전혀 살리지 못했고, 『공동개정』(“네가 나던 날, 모태에서부터 네 젊음의 새벽녘에 너는 이미 거룩한 산에서 왕권을 받았다.”)은 그 어구를 살리다가 내용이 벗어난 느낌이다. 원래 의미가 어떻든 ‘모태’는 긍정적인 맥락에 들어 있다.

‘어머니’는 또한 시편 139:13(“당신은 내 내장[킬요타이, כְּלִי־יָדָי]을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 안에서[베베텐 임미, בְּבֶטֶן אִמִּי] 나를 만드셨다.”)에 등장하지만 『공동개정』만이 원문의 ‘어머니’를 담고 있다. 시인은 생명의 창조력을 하나님께 부여한다. 창세기의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들을 만드실 때처럼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드시는 듯한 이미지를 묘사한다. 시인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너무 열심히 고백하다보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태 안에서 차근차근 아기를 사람의 꼴로 키워가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소시켰다. 어머니는 태만 빌려주고 하나님이 내장이랑 짜맞추신다는 이미지이다.

결국 시인은 자신의 신앙단계, 신앙고백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태를 언급할 뿐이다. 여성의 정체성은 남자의 기준으로, 남성을 통해서 표현된다.<sup>9)</sup> 자궁은 시인이 기원한 곳이며 시인이 적신으로 태어난 곳이고, 하나님이 장기를 만드시는 곳일 뿐이다. 원죄는 ‘태어날 때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있었다. 이런 용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제의에서 어머니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시의 무게는 시인인 ‘나’에게 있지 어머니에게 있지 않다.

### 3) 자녀와 함께 있는 어머니(113:9; 131:2).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하신 활동 두 가지를 열거한다. “[야웨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7절), “불임 여성을 한 집에 살게 하시고,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즐거워하게 하신다.”(113:9, 모쉬비 아케레트 하바이트 엠-하바님 세메하, מוֹשִׁיבֵי עֲקָרַת הַבַּיִת, אֵם-הַבָּנוּיִם שְׂמָחָה). 이 메시지는 한나의 노래(삼상 2:8, 1-10, 특히 8절)와 많이 닮았다. 불임 여성(아케레트, עֲקָרַת)이 여러 자녀를 갖게 된다는 표현 또한 한나의 기도에 등장하고(삼상 2:5), 한나 개인의 상황을 상기시킨다. 불임 여성은 가난한

8) 영어 성경도 상이하다. NRSV: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like dew, your youth will come to you.” NKJV: “In the beauties of holiness,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You have the dew of Your youth.”

9) 알리스 L.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장춘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96.

자처럼 야훼께서 낮추어 돌아보셔야 하는(시 113:6) 부류에 속했던 것이다. 이 시편은 여성이면 누구나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믿는 문화를 반영한다. 『새번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조차도 한 집에서 떼떽하게 살게 하시며”로 번역하여 원문에 없는 ‘떼떽하게’를 첨가한 것은 불임여성이라면 떼떽할 수 없다는 번역자의 생각이 엇보인다. 요즘 많은 한국 여성들은 출산을 ‘선택’의 범주에 둘 뿐만 아니라 여러 현대적 요인으로 인해 불임이 되는 상황에서, 번역자가 모든 여성이 아이 낳기를 원하고 낳아야만 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공동개정』의 “돌계집도 집안에 살게 하시어 아들 두고 기뻐하는 어미 되게 하신다.”는 독자를 고대세계로 순간이동을 하게 한다. ‘돌계집’, 부담스런 어휘 선택이다.<sup>10)</sup> 사전에 의하면 돌계집이란 ‘석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다.<sup>11)</sup> 그러나 ‘석녀’ 역시 요즘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 않은가! 하필 ‘바님’(בָּנִים)을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아들’이라고 번역해서 더욱 그러하다.

시편 131:2는 아기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실로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하여 배불리 먹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듯하다. 내 영혼이 배불리 먹은 아이 같다.” 번역자들은 원문의 ‘어머니 위에’(אלהי אמו, on his mother)가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인지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sup>12)</sup>인지 고민한다. 한국어 번역본들은 어머니의 ‘품’을 선택했다. 시인은 자신을 어린 아기로 묘사하고 하나님을 어머니에게 비유한다. 한국어 번역본들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따라 ‘가물’(גַּמַּל)을 젖뎀 아기(weaned child)라고 번역하였다.<sup>13)</sup> 고요와 평안(שויתי ודוממתי, 쉬비티 베도맘티)과 더 어울릴 만한 표현은 ‘젖뎀 아기’보다는 “배불리 먹은 아기”일 듯하다. ‘가물’이 “충분히 행하다, 적절히 다루다”를 뜻하는 동사 ‘가말’(גַּמַּל)에서 왔다는 것을 고려하면<sup>14)</sup> ‘배불리 먹은 아기’로 번역할 수는 없을까? 시인이나 번역자가 아기를 양육해보았다면 어떤 모습의 아기를 고요와 평안 상태에 비유했을까?

#### 4) 어머니, “당신(하나님)의 여종”(시 86:16; 116:16)

10) 이영미 교수 또한 이 점을 지적했다.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6 (2005), 47-68. 『새번역』이나 『개역개정』은 더 이상 ‘돌계집’을 쓰지 않는다. 우리말의 ‘불임’은 ‘가임’의 상대어로서 임신을 할 수 있으나, 없느냐만을 다룬다. 임신을 ‘선택’하는 차원의 어휘가 우리말에 없다는 게 새삼 느껴진다.

11)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10363200&query1=A010363200#A010363200>

12) 라부상네(C. J. Labuschagne)는 ‘등에 업힌’ 아이라고 주장한다. “The Metaphor of the So-called ‘Weaned Child’ in Psalm 131”, *Vetus Testamentum* 57 (2007), 114-123.

13) *NRSV, Tanak/JPS Hebrew-English TANAK*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14) Francis Brown,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BDB* (Oxford: Clarendon Press, 1952), 168.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여종’이라고 두 번 부른다. 아 니, 자신의 어머니를 부른다기보다는 자신을 ‘당신의 여종의 아들’(בֶּן-אִמְתֶּךָ, בֶּן-אִמְתֶּךָ)이라고 부르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다. 사전에 의하면, ‘당신의 여종’은 화자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submissive self-designation)이다.<sup>15)</sup>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2회; 삼상 1:11)와 엘리에게 말할 때(삼상 1:16, 18),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할 때(6회, 삼상 25:24-31),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말할 때(삼하 20:17), 나단이 밧세바에게 다윗더러 할 말을 알려주고, 밧세바가 다윗에게 말할 때(왕상 1:12, 17), 밤에 룻이 보아스에게 말할 때(2회, 룻 3:9) 자신을 ‘여종’이라고 불렀다. 흥미로운 것은 모두 여자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상대(남자)에게 직접 말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본인이 아닌 제 3자를 낮추어 부를 때는 단 한 번 나온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한 성매매 여성이 다른 성매매 여성을 지칭할 때,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왕상 3:20)가 그 경우이다.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당신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낮추어 불렀다(86:16; 116:16).<sup>16)</sup> 그렇다면 남성으로서는 유일하게 이 용법을 사용한 경우이다. 그러나 자신을 겸비하게 일컫기 위해 결국 어머니를 ‘여종’이라고 낮추어 부른 셈이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그렇게 했다고는 해도 말이다.

## 2.2. 과부(시 68:5; 78:64; 94:6; 109:9; 146:9)

구약에서 ‘과부’(알마나, אִלְמָנָה)는 자녀가 있든 없든 결혼한 후 남편이 죽은 여자를 가리킨다. 과부는 성인 여자이지만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회적 약자에 속했다.<sup>17)</sup> 구약에서 고아의 정의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이다(애 5:3). 시편에서 과부는 다섯 번 등장하는데, 사회적 약자로서(시 68:5; 146:9), 징벌의 상징으로서(시 78:64; 109:96), 악행의 대상으로서(94:6) 나온다.

시편 68:5는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관(다안, דָּאָן)이시고 고아의 아버지이시라고

15) William L. Holladay,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71), 19; BDB, 51.

16) 집회서(9:5)에도 “나는 당신의 종이며 당신 여종의 자식입니다”가 나온다.

17) 과부는 젊거나 지참금이 많으면 재혼할 수 있었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아이가 없을 경우 시형제결혼을 할 수 있었다. 재혼하지 않고 일하며 살기도 했다. 장성한 아들이 없을 경우 남편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다. 약자보호법이 이들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신 16:11-14; 24:17, 19-21; 27:19), 특히 레위인과 더불어 삼년마다 십일조를 받을 것을 규정한다(14:29; 26:12). Harry A. Hoffner, “אִלְמָנָה, 'almana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4), 291 참조.



칭송한다. 바로 뒤의 6절은 하나님께서 외로운 자들(예히딤, יְחִידִים)을 집에서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신다고 열거한다. 곧 과부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나 죄수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였다.

시인은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행한 행동을 열거한다.<sup>18)</sup> 악인들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했다”(94:6). 문학 구조상 어머니와 아이는 중간에 위치한 단어들, ‘나그네’, ‘죽이다’에 의해 떨어져 있어서 악행을 보다 심하게 겪는 양상이다. 위 시구들은 과부가 사회적 약자로서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웠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9)</sup>

시편 78:64의 경우는 시인의 원수가 아니라 시인의 조상,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여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알메노타브, וְאֵלֵּמְנוּתָיו)은 애곡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제사장들이 죽었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아내들이 과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징벌임을 분명히 한다. 여성과 어린이의 불행을 통해 저주나 징벌을 나타내는 방식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다. 사실 ‘과부’라는 단어조차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싱글’이라는 외국어가 쓰이고 있는데 대체 어휘를 고안하지 않으면 다음 번역 성서에 ‘싱글’이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sup>20)</sup>

시편 109:9에서 시인이 적에게 퍼붓는 저주는 어린이와 여자에게 닥치는 나쁜 상황을 통해 표현된다. 곧 원수의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저주한다.<sup>21)</sup> 이어서 시인은 그 고아들이 구걸하게 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아무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다(10, 12절). 이는 집안의 가장 하나가 죽을 경우 가족의 생존이 불가능한 남성 중심의 사회현실을 반영한다.

시편 146:9의 “야훼께서는 나그네들을 지켜주시고(쇼메르, שֹׁמֵר)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예오데드, יְעִידֵם)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는 표현 역시 과부를 나그네와 고아와 함께 열거했고, 야훼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대신 악인들을 멸하신다고 대조한다.

요약하자면, 시편에서 ‘과부’는 약자의 대명사로서 시인이 약자를 돌아보시는

18) 율기에서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는 것은 악인의 특성으로 나온다. 악인은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고 고아를 짓밟으며(22:9), 고아의 나귀와 과부의 소를 빼앗고(24:3), 아이를 과부 어머니에게서 빼앗기기도 한다(24:9).

19) ‘과부’는 약탈한 적의 땅을 상징하기도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땅을 버리셨을 때 이스라엘은 ‘과부’(사 47:8)라고 불리웠고, 그것은 ‘과부됨’(알마누트)의 상황이었다(사 54:4).

20) ‘비혼 여성’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혼을 중심에 두는 표현이라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비정부단체, 비영리단체와 같은 말이 각각 정부, 기업을 중심에 두는 표현이므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듯이 말이다.

21)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라고 번역했는데, ‘고아’ 대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표현은 한국어 독자에게 부정적인 어감을 준다고 본다. 그냥 ‘고아’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약자를 괴롭히는 악인을 묘사할 때, 악인을 저주할 때 사용했다. 시인이 특히 적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곧 적이 죽게 해달라고 저주하는 것은 과부를 돌보는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과 모순을 보인다.

### 2.3. 아내 또는 여자(이샤: 시 128:3; 58:8)

‘이샤’(אִשָּׁא)는 시편에서 ‘아내’와 ‘여자’로 각 한 번 나온다. ‘아내’는 남성사회를 위해 가문의 대를 든든히 이어주었다는 대목에서 등장한다.<sup>22)</sup>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에슈테카 케게펜 포리아, אִשָּׁא קְבִיבָה כְּגֵזֶן פִּיטָיָה)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이다.”(128:3, 『개역개정』) 사실 이 시구는 아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다산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통해 남성의 안정성을 묘사하는 것이다. 아내와 아이는 여기서 기껏 ‘나무’이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이고, 아이들은 올리브나무 ‘묘목’(『새번역』)이다. 이 시구는 ‘네 아내’라고 했으므로 칭증이 남성임이 분명하다. 반대로 여성이 시인의 칭증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시구는 찾아볼 수 없다.

시편 58:8에서 독자는 생명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고대의 시인을 만난다. “(악인은)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미숙아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이 시구는 상당히 인간 중심적이고 특히 남성 중심적이다. 악인은 달팽이처럼 미미한 존재요, 미숙아이다. 미숙아가 말라가는 달팽이와 대구어라는 것이 섬뜩하다. ‘미숙아’의 문자적인 표현은 ‘여자에게서 떨어진 것’(네펠 에쉐트, נֶפֶל אִשָּׁת), 곧 유산된 아이이다. 현대의 독자들은 미숙아를 출산하여 아기의 죽음을 경험하는 산모와 가족을 상상한다. 시인은 아기를 잃은 산모에 대한 무감각을 독려하고, 물이 없어 말라가는 달팽이의 죽음을 당연시하도록 초대한다. 독자들은 이런 구절이 생명과 환경 경시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싶어진다. 시인의 적에 대해 현대의 독자도 함께 악담을 퍼부어주어야 할까? 원문에 명백한 생명경시, 폭력 조장, 각종 차별 등을 오늘날의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는 번역자의 커다란 부담이다. 『공동개정』만이 원문의 ‘여자’를 넣었지만 “유산하는 여인의 몸에서 핏덩이가 쏟아지듯이”라는 생생한 표현은 원문의 잔인함을 강화시킬 뿐이다.

### 2.4. 해산하는 자(시 48:6)

22) 에스더 폭스(Esther Fuchs)는 성서에 등장하는 여성의 여러 역할(어머니, 딸, 누이, 아내 등) 중에서 아내의 위상이 가장 낮게 묘사되었다고 관찰한 바 있다. Esther Fuchs, *Sexual Politics in the Biblical Narrative: Reading the Hebrew Bible as a Woma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시편에서 아내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것은 시편의 강한 가부장제적 문화와 일맥상통하는지도 모른다.

시편 48:6(“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았다.”)에서 ‘아이 - 낳는 - 여자와 - 같다’(카올레다, כַּיְלֵדָה)는 것은 극도의 위기나 위험을 나타낸다. 열왕들이 높고 아름다운 시온 산을 보고(2절 참조) 떠는 것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생사의 기로가 달린 고통과 공포를 느낀다는 뜻이지, 열왕들을 여성화하는 것, 곧 문학적으로 거세하는 것은 아니다.<sup>23)</sup> 남성인 시인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남성인 열왕들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썼다는 것이 아이러니이다.

## 2.5. 딸(9:14; 45:9, 10, 12, 13; 97:8; 106:37-38; 137:8; 144:12)<sup>24)</sup>

딸이라는 뜻의 ‘바트’(בת)는 ‘벤’(בן, 아들)처럼 여러 의미를 지닌다.<sup>25)</sup> ‘자녀들’은 보통 ‘바님 우바노트’(아들들과 딸들, בָּנִים וּבָנוֹת)로 표현된다(창 5:4 등). 이 두 단어는 시 본문에서 서로 대구어이다. ‘바님’(아들들)만으로도 형제자매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바님 우바노트’는 아들, 딸 각각의 개체성을 더 가리키는 듯하다. 시편에서 ‘바트’는 네 가지 용법으로 쓰였다. 먼저, 도시나 나라 이름과 함께 딸 시온(9:15), 딸 유다(97:8), 딸 바벨론(137:8)의 경우처럼 쓰였다. 둘째로, 누군가의 ‘딸’이라는 의미로 2회 쓰였다(시 45:12; 106:37-38; 144:12). 셋째로, 2인칭 화법에서 상대 여성을 부를 때(45:10) 쓰였다. 넷째로, ‘아내’나 ‘여자’의 뜻으로 쓰였다(시 45:13).

시편 9:14의 시인은 야훼께 자신의 고통을 보아달라고 간구하고(13절), “그리하시면 ... 딸 시온의 문에서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고 말한다. 13절의 ‘사망의 문’이 14절의 ‘시온의 문’과 대조되어 있다. 이 시온은 ‘딸 시온’(바트 짜이온, בַּת-צִיּוֹן)이다. 이 기쁜 분위기는 시편 97:8에서 다시 시온과 ‘유다의 딸들’에게 이어진다.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베노트 예후다, בָּנוֹת יְהוּדָה)이 즐거워합니다.” ‘유다의 딸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들, 성읍들을 가리킨

23) Claudia Bergmann, “We Have Seen the Enemy, and He Is Only a ‘She’: The Portrayal of Warriors as Wome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9:4 (2007), 651-672. 베르그만은 남자 군사들을 ‘해산하는 자와 같다’고 하는 것은 여성화하는 표현이 아니라 단순히 극도의 위기와 공포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

24) 시편 45편은 뒤에서 별도로 다룬다.

25) 바트는 누군가의 딸, 손녀(왕하 8:26), 부족 일원(tribal brothers)의 딸(삿 14:3), 젊은 여성, 도시나 부족의 여성 일원(창 27:46) 등을 가리키고, 또한 도시나 나라를 의인화할 때, 도덕적, 신체적 특징을 나타낼 때(삼상 1:16, 벨리알의 딸), 나이를 나타낼 때(창 17:17, ‘90년의 딸’, 곧 90세의 사라)에도 쓰인다. H. Haag, “בַּת bat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2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75), 334-335.

다.26) ‘딸’이 긍정적인 맥락에서 의인화될 때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딸’이 저주당하는 맥락에 등장할 때 독자는 괴롭다. 대상이 시인의 원망 상대인 바벨론이라 해도 말이다.27) “멸망할 딸 바벨론아(바트 바벨 하슈두다, בַּת־בָּבֶל הַשְּׁדוּדָה),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137:8) “멸망할 딸”로 시작하는 대목이 독자의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새번역』은 독자를 배려하여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로 택한 듯하다.28)

시편 106편의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 정리하면서 ‘그들’ 곧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을 37절과 38절에서 반복하여 지적한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귀신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무죄한 피, 그들의 아들들과 딸들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하므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다.” ‘아들들과 딸들’은 매 절에 나온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이 표현을 살려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자녀’로 줄여서 번역했다. 그러나 ‘바님’(בָּנִים)으로 ‘자녀’를 표현할 수 있었지만 ‘아들들과 딸들’을 두 번이나 쓴 것은 세 번이나 쓴 ‘피’와 어울린다. 곧 그만큼 많이 자식들을 희생제물로 바쳤고 많은 피를 흘렸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일일이 ‘살리는’ 게 나올 듯하다.

시편에는 ‘돌기둥처럼’ 튼실한 딸도 나온다. 여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드문 경우이다. 시편 144편의 시인은 잘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든든한 자식들의 이미지로 시작한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144:12, 『새번역』).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이 대구어로 쓰였다. 아들은 나무 같고(『공동개정』은 ‘햇순’같다고 했다.), 딸들은 궁전의 돌기둥 같다고 한

26) 주요 도시의 성벽 외부에 있으면서 성의 보호 반경 안에 있는 주변마을들을 가리킨다. 알리스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301.

27) 한 여성 교인이 말했다. 설교시간에 목사님이 예화를 통해 한 여성을 비난하셨는데, 본인은 그런 사례와 무관했지만 여성으로서 동일시되었고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아 듣기 거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137:9에서 시인이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매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와 같은 표현 또한 위 시편 58:8처럼 민감한 독자의 평화를 깬다.

28) 일찍이 스타인스프링은 ‘바트 짜온’을 문법적 동격으로 보고 “시온의 딸”이 아니라 “딸 시온”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W. F. Stinespring,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ounter* 26 (1965), 133-141. 그 후 “딸 시온”이라는 이해가 널리 받아들여졌고, 최근 한글 성경번역본들도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마이클 플로이드(Michael H. Floyd)는 최근의 글에서 ‘바트 짜온’이 문법적으로 동격이 될 수 없고, 여성들이 집합적으로 기쁨과 슬픔을 표현한 관습에서 볼 때 “시온의 딸”의 역할을 여성 거주민을 의인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예루살렘이 어머니이고 거민이 딸이라면 이 도시의 회복은 딸의 세대에서 일어난다는 은유로 보아(슥 3:14-15, 20) 다시 “시온의 딸”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Welcome Back, Daughter of Z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0:3 (2008), 484-504.

다. 시인은 나무와 돌기둥으로 대구를 만들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딸 돌기둥이 아들 나무보다 더 강하고 우람한 이미지 같다.

## 2.6. 여주인과 하녀(123:2)

시편에서 또 다른 여성 이미지는 123:2(“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머슴의 눈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하녀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야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에 나오는 여주인과 하녀의 이미지이다(케에네 쉬프하 엘 야드 게비르타, *בְּרַחֵם אֱלֹהֵינוּ שִׁפְחָה אֶל־יָד גְּבוּרָתָהּ*, 여주인의 손을 보는 여종의 눈처럼). 주인/여주인, 머슴(남종)/하녀(여종)가 각기 짝을 이루고, 손과 눈 또한 반복하며 대구한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여종이나 남종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여주인 또는 주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머슴, 하녀라면 괜찮다. 하나님 또한 여주인, 남주인이시라면 괜찮다. 하나님을 양성적으로 묘사했다는 면에서 현대의 독자에게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주인과 종이라는 옛 위계제도와 개념은 현대 독자에게 여전히 걸림돌이다.

## 2.7. 주님의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

시편 68:11에서 주님께서 말씀 주셔서 여성들이 전하는 일을 한다는 대목은 시편에서 가장 여성 우호적인 말일 것이다. 하지만 68편은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다. 68편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다룬다고 볼 때 여자들을 언급하는 11-12절이 핵심 주제를 잘 보여준다. 소식을 공포하는 사람들, ‘함바스로트’(*המבשרות*)는 여성형이고, 영어성경이 종종 이를 살리지 못한 것에 비하면<sup>29)</sup> 우리말 세 번역 성경이 이를 잘 살렸다. 이 여자들은 수가 많았고 집에 있던 여자(들)은 전리품을 나눈다(우느바트 바이트 테할레크 샬랄, *וַיָּנוּת בַּיִת תְּחִלָּק שָׁלָל*, 12절). 전리품 분배는 보통 전사들의 특권이고 일상사였지만<sup>30)</sup> 12절은 그것을 여성에게 돌린다. 그러나 다음 절, “너희가 양 우리에게 누워 있었지만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는 주어도 의미도 불분명하다. ‘티슈케분’(*תִּשְׁכַּבְוּן*)은 문법적으로 2인칭 남성이나 『새번역』은 앞 문맥을 따라 ‘그 여인들’을 주어로 보았다. 내용은 모호하지만 여성에게 긍정적인 맥락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29) NRSV는 “great is the company of those who bore the tidings”라고 했고, NKJV 또한 비슷하다. NRSV는 각주에 “Or company of the women”이라고 밝혔다.

30) 마빈 E. 테이트, 『시편 51-100』, WBC 20,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2), 312.

2.8. 젊은 여자(45:14<sup>31</sup>); 46편의 제목; 68:25; 78:63; 148:12-13)

시편에서 ‘젊은 여자’는 ‘알라모트’(עלמות)와 ‘베틀라’(בתולה)로 표현된다. 시편 46편의 제목에 나오는 ‘알라모트’는 그대로 두면 가락이나 곡조명을 가리킬 수도 있고, 번역하면 ‘젊은 여자’라는 뜻이다.<sup>32)</sup> 세 성경 모두 ‘알라모트’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것이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sup>33)</sup> 그렇다면 이 시편을 보존한 신앙공동체의 여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어려울 때마다 구해주시는 분”(46:1, 7, 11) 이시라고 주장하고, 인생 역전을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조상의 하나님은 여성의 피난처와 힘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시편 68:25(“젊은 여성들은 소고 치며 노래하는 이들은 앞서고 악기 연주자들은 뒤를 따랐다.”)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성소로 행차하실 때(24절) 음악대가 뒤따르는 것을 연상한다. 음악대에는 찬양과 악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젊은 여성들(알라모트)이 소고를 치는 것으로 나온다. 『개역개정』은 ‘알라모트’를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와 ‘아가씨’라는 말은 요즘 잘 쓰지 않는다. 젊은 여성을 그렇게 부르면 싫어한다. 『새번역』이 ‘소녀’라고 번역했는데 ‘소녀’는 웬지 청소녀의 연령 같다. 청소녀가 예배에서 음악대의 역할을 맡는 것은 고무적이나 시편 시대에 그러했는지는 의문이다.

시편 78:63(“그들의 젊은 남자들은 불이 삼켜버리고 젊은 여자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에서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바후라브’(בַּחֲרִיב) // ‘베틀로타브’(בְּתוּלָתוֹ)를 각기 ‘그들의 청년//그들의 처녀들’, ‘젊은이들//처녀들’로 번역했다. ‘청년-처녀’나 ‘젊은이들//처녀들’은 상응하는 대구어가 아니다. 『새번역』이 택한 ‘총각-처녀’가 알맞은 대구이지만 ‘총각’ 앞에만 ‘젊은’을 붙였다. 또한 ‘총각’, ‘처녀’라는 단어가 우리 문화에서 고어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위에 있는 시편 68:25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해서 새삼 여성을 일컫는 옛 단어들이 더 이상 문화와 정서에 걸맞지 않게 되었는데 대신 적합한 신조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젊은 여자’와 같은 표현은 무난하다고 본다.

시편 148:12-13에서 여성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야훼를 찬양하라는 명령을

31) 아래 45편을 다룰 때 포함할 것이다.

32) RSV와 NRSV는 번역하지 않은 채 “According to Alamothe”라고 두었다.

33) 미리암, 드보라, 유딧, 한나, 마리아는 삶의 개인과 국가의 인생역전(reversal)을 시에 담아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Kathleen A. Farmer, “Psalm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38-139.

받는다. ‘모든’ 사람들의 총칭으로서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바후림 베 감-베톨로트 즈케님 임-네아림, 라 10:25 וְגַם בְּתוּלוֹת וְקָנִים עִם־נְעָרִים)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처녀들을 언급하지만 청년, 노인, 소년과 함께 언급한다.<sup>34)</sup> 여기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성차별은 교묘하다. 여자와 남자를 포함하되 남성의 수를 훨씬 많게 하는 것이다.<sup>35)</sup>

## 2.9. 왕실의 여자들(시 45:9-15)

시편 45편은 시편에서 여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왕의 딸들(공주), 왕후, 두로의 딸, 왕후의 친구 젊은 여성들 등이 등장한다. 9-15절은 결혼식 순서를 묘사하는 듯하다.

왕의 딸들은 왕이 귀히 여기는 이들이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있다(9절). “왕후님, 듣고 보고 그대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10절). 그러면 임금님이 왕후님의 아름다움을 원할 것입니다. 그는 왕후님의 주인이니 왕후님은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11절).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자들도 왕후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12절) 왕의 딸은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네(13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녀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고 여자 친구들이 뒤따른다네. (14절)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안내를 받아 왕궁에 들어가네(15절).

45편은 왕과 왕비의 결혼노래로 알려져 있고 신랑인 왕을 묘사하는 것(2-8절)에서 신부인 왕후를 묘사하는 것(9-15절)으로 이어진다. 시인은 먼저 공주들, 왕후, 왕이 서 있는 모습을 그린다. 그런 후 왕후에게 당부의 말씀을 2인칭으로 말하고(10-12절). 13절부터는 왕후가 예복을 입고 왕에게 가고, 들러리 친구들이 왕궁에 입장하는 모습이 3인칭 시점에서 묘사된다. 오늘날 서양의 결혼식과 매우 비슷하다.

‘딸’(바트, בַּת)은 4회 나오는데, 왕들의 딸들(베노트 멜라킴, בְּנוֹת מְלָכִים, 공주들, 9절), 왕후(바트, בַּת, 딸/왕후, 10절), 두로의 딸(바트-쪼르, בַּת־צֹר; 『새번역』: 두로의 사신들; 공동번역: 띠로의 사람들, 13절), 왕의 딸(바트 멜레크, בַּת־מֶלֶךְ, 왕후, 13절)등 의미가 문맥마다 다르다. 왕후의 들러리인 여자 친구들(베톨로트

34) 『공동개정』은 ‘노인’을 ‘늙은이’라고 했는데 『새번역』과 『개역개정』은 이 낫추는 표현을 쓰지 않고 ‘노인’으로 바꾸었다. 이 구절의 ‘처녀’나 ‘총각’은 위 시편 78:63처럼 고대적인 표현이므로 새 단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35) 알리스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289,

… 레오테하, רֵעוּתִיָּהּ … בְּתוּלוֹת)도 한몫을 한다. 시녀가 아닌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이 특이하다.

『개역개정』과 『공동개정』은 왕후에게 반말로 ‘딸이여’라고 부르거나 명령조로 번역했다. 왕후에게 존대어를 쓴 『새번역』이 타당하다. 『개역개정』의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9절)은 공주들을 묘사하는 표현치고는 성적으로(sexually) ‘가까이’ 하는 듯한 어감이다. 원래의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예카로트, יִרְקָה)을 따르는 게 나올 듯하다.

시인이 45편에서 여성을 많이 등장시켰다고 해서 그리 고마운 일은 아니다. “왕후님의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로 시작하는 주레사는 일방적이다.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 같은 것은 없다. 왕후만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이다(11절). 왕이 왕후의 주인이니 왕을 경배해야 한다(11절). 두로에서 온 사신들이나 부자들이 왕후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12절). 이 권면의 말씀은 한 마디로 당근과 채찍, 협박과 회유이다.

이 주레사는 앞부분에서 신랑인 왕을 찬양한 내용과 큰 대조를 이룬다. 왕은 용사로서 칼을 허리에 차고(3절),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위엄을 갖고(4절), 화살이 원수를 무찌르고(5절), 게다가 6절에서는 왕을 ‘하나님’(엘로힘, אֱלֹהִים)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러니 왕후는 이 왕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상아궁에서 울려나오는 현악(8절)과 금장식과 수놓은 예복의 뒤에는 가부장제가 숨겨 있다.

### 3. 종합 및 결론

#### 3.1. 남성적 문헌으로서의 시편

오랜 세월이 걸쳐 수많은 시인들이 노래한 시들이 모여 한 권의 책으로서 시편이 되었다. 학자들은 시편의 주인공 ‘나’는 유형적인 인물이고, 본래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시편이 나왔겠지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대변하는 시편이 되었다고 본다.<sup>36)</sup>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결과, 시편 저자의 ‘유형’이나 시편의 ‘보편성’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시인의 목소리는 소프라노나 알토라기보다는 바리톤, 베이스 또는 테너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 시편에서 여성은 적게 등장할 뿐 아니라 배제된다. 150편의 시편 중 여성은

36) 제임스 메이스, 『시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54-55.



32편의 시편에 등장하여 단편적으로 언급된다. 다윗 한 사람이 69편의 시 머리말에서 언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다.<sup>37)</sup> 여성이 언급된 부분보다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례로, 시편에는 창세기의 족장들을 비롯한 41명의 남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sup>38)</sup> 그러나 여자의 이름은 여족장들의 이름조차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 다윗, 아삽, 고라와 같은 남자들만이 머리말에서 언급된 것 자체가 남성을 역사를 만드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여성을 배제한 또 다른 예는 ‘공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이다. ‘라함’(רַחֵם, 공홀히 여기다)과 ‘레헬’(רַחֵם, 자궁, 태)은 어근이 같다. 시인은 여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이 단어를 아버지에게 적용한다(시 103편). 시인은, 아버지가 자식을 공홀히 여기듯이 야훼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를 공홀히 여기신다고 할 때 아버지를 야훼와 동격에 둔다(103:13). “공홀히 여기다”는 시편에서 총 22회 사용되었는데, 단 2회를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의 공홀하심을 나타낸다.<sup>39)</sup> 그 예외적인 2회는 시인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18:2)와 여기 103편에서 ‘아버지’가 공홀하다고 말할 때, 곧 모두 남자에게 쓰였다. ‘레헬’을 가진 여성이 ‘라함’을 적용하는 데서도 제외된 것이다.

2) 시편에 여성 이미지가 등장할 때도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시편에서는 여성이 출산과 태에 관련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스라엘 사회의 생존과 복지에 있어서 다산과 번영이 중요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여성은 이런 기능에서 가장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주로 부정적인 맥락에서 등장했다. 어머니의 역할은 간접적으로만 유추될 수 있고, 제3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니다. ‘어머니’나 ‘모태’는 시인의 자기변호나 죄의 고백이라는 관점에서 언급될 뿐이었다. ‘아내’ 또한 다산일 경우에만 기억되었고 그조차 나무에 비유되었다(128:3). 시인에게 있어서 친정은 결혼한 여자가 있어야 할 곳이었고(45:10), 왕후조차도 왕을 경배해야만 총애를 받을 뿐이다(45:11). 불임 여성은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다(113:9). 시인의 대적은 ‘여자에게서 떨어진 아이’로 유산되어야 하고(58:8), 아내가 과부가 되어야 한다니(109:9) 여성에게 닥치는 불운은 배려하지 않는다.

시편에는 여성 우호적인 구절도 있었다. 시편 123:2가 하나님을 양성적으로 묘사한 것(여주인과 주인)이나 여성을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묘사한 것(68:11 이하)이다. 그러나 시인이 이를 의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7)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290.

38) 라페이가 일일이 열거하였다.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290-291.

39) 빈도수에 관해서는 Solomon Mandelkern,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Tel Aviv: Schocken Publishing House, 1986)을 참조했다.

3) 시편은 남성을 청중으로 삼아 메시지를 선포하며(시 69:8; 128:3), 남성에 의한 작품(‘당신의 여종의 아들’)이다. 시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혜로운 자’, ‘원수’, ‘곤고한 자’, ‘악인’과 같은 인물은 성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남성을 전제한다. 가부장제 색깔이 짙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남성적 용어로 묘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남성 인물들의 하나님이요(시 47:9, 20:1, 41:13), 왕이요(시 5:2), 아버지요(68:5), 목자요(80:1), 과부들의 보호자(시 68:5)였다.

어느 시편도 특별히 여성을 위해 또는 여성에 의해 지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특별히 반여성적인 목적으로 시편을 지었다고 볼 수 없다. 시편이 다른 성서 책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만 가지고도 시편이 그다지 여성 친화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번역의 문제

앞에서 대두된 번역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원문에서 가족 구성원을 나열한 것을 한국어 번역 성서에서 축약한 경우에 종종 여성 구성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번역자들에게는 원문의 자구를 살려 모두 번역에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말로 뜻이 잘 통하면서도 간단한 형태의 우리말로 번역할 것인지가 항상 문제일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로, ‘아들들과 딸들’을 ‘자녀’로, ‘어머니의 태’를 ‘모태’로 줄이는 경우 한국어로는 부드럽고 시어로도 간결하다. 그러나 어머니나 딸의 개체성이 사라지고, 그러지 않아도 적게 등장하는 여성 이미지가 없어진다. 민감한 독자는 어머니, 딸, 여자와 같은 어휘를 번역에 살려 넣고 싶다. 그렇게 하면 시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 아무리 자구를 살려 넣어도 시편이 처음부터 여성 우호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문에 나오는 여자를 빼는 것은 아깝다.

2)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들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이미 고어가 되었다. 여전히 성경에서 사용되는 ‘총각’, ‘처녀’, ‘아가씨’, ‘과부’, ‘돌계집’, ‘늙은이’와 같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이 되었다. 남자들은 ‘총각’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여자들은 여기 제시한 단어로 불리는 것을 싫어한다. 오죽하면 ‘아줌마’도 싫어서 여자들은 다 ‘언니’가 되어버렸다. 여성에 대한 호칭이 가장 민감한 시대가 되었고,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시편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는 자들’을 ‘~하는 사람들’로 바꾸면 좋겠다. ‘놈’ 자(者)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는 자들’은 여성을 배

제하는 표현으로 들린다.

3) 원문에 없는 여성을 번역에 첨가하면서 비하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다. 시편 58:3에서 원문에 없는 ‘어머니’를 넣어 “거짓말을 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빛나갓구나.”(『새번역』)라고 번역하여 ‘어머니’를 사용한 욕처럼 들리게 되었다. 또한 『개역개정』은 시편 73:27의 번역에서 ‘음녀’를 넣었다. “당신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원문에는 ‘조나’(הַנָּזִי, הַנָּזִי, 음녀)가 아니라 ‘조네’(הַנָּזִי, 다른 신을 따라 가다)로 나오는데 ‘음녀’라고 번역했다.<sup>40)</sup> 원문에 없는 여자가 번역에서 들어갔고 게다가 ‘음녀’같은 부정적인 말이라서 폐해가 크다.

4)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배려하는 표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젖을 빨다’와 같은 우리말 표현(시 22:9, 『새번역』)은 원문에 있지도 않았지만, 공중 예배용 성경치고는 적나라하다고 본다. 지금은 아무도 아기를 대중 교통수단 안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수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더 이상 문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 표현은 성경 번역에도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편에서 더 많은 보랏빛을 보고 싶은 번역자는 ‘원전’보다 낮게 번역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본문의 성차별을 드러내고 정죄한 후 다른 본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일까?<sup>41)</sup> 번역이 여성 독자에게 우호적이기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여성의 경험과 느낌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번역에 넣기 전에 식견 있는 여성 독자, 여러 계층의 여성, 다양한 경험을 가진 여성에게 고루 의견을 물어보아야 한다.

시편을 보랏빛 렌즈로 본 우리의 시도는 안타깝게도 시편을 여성 친화적이지 아닐 뿐만 아니라 꽤 가부장적인 문헌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다. 어떤 독자는 시편이라는 책을 덮어놓고 여성의 경험과 감성이 충분히 반영된 새로운 시편, 협소하고 관용할 줄 모르고 생명과 자연, 타자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한 시편을 보완하는 새로운 시편을 만들어 성서에 넣자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성서 번역에서 독자의 민감성을 살려 포괄적으로 번역하는 노력은 지금까지 꽤 진행되었다고 본다. 앞으로의 과제는 과감하게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시 쓰는 일이 진정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싶다.

40) 『새번역』(“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과 『공동개정』(“당신을 떠난 자 망하리니, 당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 멸하시리이다.”)에는 ‘음녀’가 없다.

41) 티나 피핀(Tina Pippin)이 제기한 질문이다, “Translation Happens: A Feminist Perspective on Translation Theories”, H. C. Washington, Susan L. Graham, Pamela Thimmes, and Pamela Lee, eds., *Escaping Eden: New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Bibl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171.

<주요어>(Keywords)

시편, 여성 이미지, 페미니스트비평, 번역.

Psalms, women images, feminist criticism, translation.

(투고 일자: 2009. 8. 6, 심사 일자: 2009. 9. 14, 게재 확정 일자: 2009. 10. 20.)

<참고문헌>(References)

- 김정우, “히브리 시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 이론과 실제-시편 49편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2, 2003, 7-40.
- 메이스, 제임스 L., 『시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민영진, “우리말 성서 번역에 있어서 성차별 표현의 처리 성경전서 표준새번역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15 (2004), 281-329.
- 알리스 L. 라페이, 『여성신학을 위한 구약개론』, 장춘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이영미, “한글 성서 번역의 양성평등적 언어 활용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16 (2005), 47-68.
- 테이트, 마빈 E., 『시편 51-100』. WBC 20, 손석태 역, 서울: 솔로몬, 2002.
- Bergmann, Claudia, “We Have Seen the Enemy, and He Is Only a ‘She’: The Portrayal of Warriors as Wome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69:4 (2007), 651-672.
- Brown, Francis, S. R. Driver, and Charles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Press, 1952.
- Farmer, Kathleen A., “Psalms”, Carol A. Newsom and Sharon H. Ringe, eds., *Women’s Bible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3-44.
- Floyd, Michael H., “Welcome Back, Daughter of Zion”,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0:3 (2008), 484-504.
- Fuchs, Esther, *Sexual Politics in the Biblical Narrative: Reading the Hebrew Bible as a Woma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 Haag, H., “בַּת bat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2,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5, 332-338.

- Hoffner, Harry A., “אלמנח, ’almanah”, G. Johannes Botterweck and Helmer Ringren,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1,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4, 287-291.
- Holladay, William L., *A Concis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Leiden: E. J. Brill, 1971.
- Labuschagne, C. J., “The Metaphor of the So-Called ‘Weaned Child’ in Psalm 131”, *Vetus Testamentum* 57 (2007), 114-123.
- Mandelkern, Solomon, *Veteris Testamenti Concordantiae Hebraicae Atque Chaldaicae*, Tel Aviv: Schocken Publishing House, 1986.
- Pippin, Tina, “Translation Happens: A Feminist Perspective on Translation Theories”, H. C. Washington, Susan L. Graham, Pamela Thimmes, and Pamela Lee, eds., *Escaping Eden: New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Bibl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163-176.
- Stinespring, W. F., “No Daughter of Zion: A Study of the Appositional Genitive in Hebrew Grammar”, *Encounter* 26 (1965), 133-141.
- Tanak/JPS Hebrew-English TANAK*,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9.
- The Hol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Nashville: Thomas Nelson Bibles, 1999.
- The Holy Bibl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American Bible Society, 1989.
- The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New York: T. Nelson, 1952.

<Abstract>

**Reading the Book of Psalms through a Purple Lens:  
A Study on Women Images in Psalms and Korean Translations**

Dr. Yani Yoo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essay deals with expressions related to women images and roles in the Book of Psalms and evaluates how friendly the expressions and their Korean translations are to women readers. Women images and roles in psalms are often limited to women's traditional functions and roles within home such as womb, giving birth, raising family, mother, wife, daughter, et al. Women are also described as taking roles in public sphere. Since the Psalms were proclaimed to male audience, poets reveal their prejudices and patriarchal social reality when they mention women images.

Mothers largely appear in negative contexts, their roles can only be inferred indirectly and are objects, not subjects. Wombs are referred to in relation to the poets' self-vindication or confession of sins. Wives are remembered only when they are fertile (128:3). Women are advised to forget their own family after marriage (45:1) and the queen will be favored only when she obeys the king (45:11). Barren women are worthless and thus the object of God's mercy (113:9). Poet's enemy is like an aborted child (58:8) and the enemy's wife is to become a widow (109:9): there is no consideration about women's ill fate.

There are some verses in the Book of Psalms which are favorable to women. God is described as both a mistress and a master (123:2). Women are the ones who bring God's messages (68:11 ff). But it is hard to imagine that poets intended these women friendly images.

This essay deals also with condensation of words in Korean translations. Korean Bibles often translated "father and mother" of the Hebrew text as "parents", "sons and daughters" as "children", "the womb of my mother" as the "womb". It gains conciseness but costs individuality of characters and make the few occurrences of women related words disappear in translation. The Korean translations still include old expressions referring to young women and widow. Today, somehow those old words are considered as offensive and thus the essay calls for alternatives. Some

additions in translation debase women. Women's experiences and feelings are to be reflected in translation.

After analyzing the Book of Psalms with a purple feminist lens the essay finds the Book not just un-feminist but severely patriarchal. Although inclusive translation has been done a lot in the Bible translation field, translation as correction, deletion, and rewriting will be needed more in the future.